

2015. 09. 07. 월요일

대구환경공단 제5호

중 국 환 경 소 식 지

수석대표 이상대 (☎ +86 186-2606-1134 / kktrlove@hanmail.net)

부대표 김기곤 (☎ +86 186-2606-1194 / giraffeland@hanmail.net)

중국 강소성 의흥시 녹원로 501호 환보과기빌딩 B청사 403실. (☎:070-4137-8009)

1. 중국 이상시 봉요그룹 임직원 대구환경공단 교육연수차 방문

- 2015년 9월 13일부터 19일 까지 6박 7일 동안 중국이상의 환경기업인 봉요그룹 임직원 12명이 대구환경공단(이사장 윤용문)을 교육연수차 방문한다. 봉요그룹(동시장 왕홍춘)은 중국 강소성 이상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자본금은 30억위안(5400억원 정도)이며 수처리설비 제조, 환경시설을 설계·시공·운영관리를 하는 종합환경전문 기업이며 20여개의 오수처리장을 운영 관리하고 있다.



봉요그룹 본사전경

- 봉요그룹 왕홍춘 동사장은 금년 4월, 2015 제7차 세계물포럼시 대구환경공단이 개최한 한중 환경기업 교류회에 참가하여 대구환경공단의 환경기초시설을 견학한 후 우수한 운영기법을 벤치 마킹하고자 교육연수를 요청하였고 이를 대구환경공단 윤용문 이사장이 흔쾌히 수락하면서 성사가 되었다. 이들은 이번 교육연수를 통하여 오수처리장의 선진적 운영관리, 기전시설 유지보수, 자동화 제어시스템 유지관리, 측정 및 실험관리, 긴급상황 대처방안 등 처리장 운영전반에 대하여 교육연수를 받게 된다. 대구환경공단은 이를 통하여 한중 양국의 환경분야 교류를 확대하고 나아가 지역환경기업의 중국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 중국환경보호부 2015년 상반기 환경처벌 결과 공개

- 중국 환경보호부(環境保護部)는 2015년 상반기 환경관리 감독시행 결과를 공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환경문제로 조사 받은 기업은 총 62만여 곳으로, 그 중 1만 5,839 곳에 생산 중단 명령이 내려졌고, 9천325 곳이 폐쇄되었으며 일수 기준으로 총 2억3천만 위안(약4백 3십억원)의 벌금이 부과됨.
- 이는 금년부터 시행된 新 환경보호법에 따른 엄격한 법 집행의 결과로서
 - 천지닝(陳吉寧) 중국 환경보호부 부장은 “좋은 법을 종이호랑이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면

서 “이를 예리한 무기로 만들려면 법의 집행과 시행이 중요하다”고 누차 강조했다.

- 이를 위해 환경 부처는 신환경보호법에 따라 일수 계산법 처벌, 차압·압수, 생산 제한 및 중단, 행정 구류 등 수단을 동원, 뉴노멀 속에서 적극적으로 환경 관리 감독과 법 집행을 진행하고 있음.

○ 상반기 처벌 상황

-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수 계산법에 따른 처벌 건수는 292건, 벌금은 2억3천635만900위안임.
- 차압·압수 1천814건, 생산 제한 및 중단 1천92건, 행정 구류 782건, 오염 혐의 범죄 이관 740건임.
- 이 밖에도 올해 상반기 환경보호부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문제가 있는 도시 5곳에 대해 환경 평가를 통한 오염 제한을 시행, 37개 기업에 관리 감독 사무소를 상주하게 하고, 탈황설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화력 발전소에는 탈황 전기료 5억1천만 위안을 삭감함.

○ 면담을 통한 문책, 경고, 면직도 이어져

- 면담은 지방정부 환경 보호 주체 책임 강화의 주요 수단이며 올해 들어 환경보호부는 10개 도시와 지방정부 두 곳의 주요 책임자와 면담을 진행하고, 지역 환경보호 감독 검사 센터와 공조하여 창춘(長春), 창저우(滄州), 린이(臨沂), 청더(承德), 뤼량(呂梁), 쑤양(資陽), 우시(無錫), 마안산(馬鞍山) 등 8개 시정부의 주요 책임자와 면담함.
- 데이터에 따르면, 화베이(華北) 환경보호 감독 검사 센터 관할 지역 면담 후 창저우, 주마덴(駐馬店), 바오딩(保定), 청더에서 각각 29명, 7명, 3명, 18명의 관련 책임자가 문책, 경고, 면직 조치에 처해짐.

- 중국정부의 신환경법에 의한 처벌강화가 우리나라 환경기업들에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특히 고농도 폐수처리 기술과 관련하여 대구환경공단 중국TFT로 문의가 접수되고 있으므로 우수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발굴하여 중국 환경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3. 중국에서의 비즈니스 에티켓 소개

중국환경소식지에 중국의 문화, 제도, 법률 등을 시리즈로 소개하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사업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이번호는 중국에서의 비즈니스 에티켓에 관한 자료를 소개하였습니다.

□ 역사/문화적 특이사항 및 금기사항

○ 녹색모자는 금물

녹색모자에 대한 금기는 원나라때부터 시작되었으며 중국에서 남자가 녹색모자를 쓰면 ‘아

내가바람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녹색모자와 관련된 관용어로 ‘빼이런따이뤄마오즈(被人戴綠帽子, 녹색모자가 씌워 졌다)’라는 말이있는데 이는 체면이 구겨지는 일을 당했을 때 쓰는 표현이다.

○ 중국을 상징하는 건축물 상표 사용불가

중국에서는 국가명칭이나 국기, 국장, 군기, 훈장등과 같거나 비슷한 도형, 중앙국가기관이 소재하는 특정된 지명이나 대표성 건축물의 명칭, 도형을 상표로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테면 ‘텐안먼(天安門)’, ‘즈광거(紫光閣)’, ‘인민대회당(人民大會堂)’등은 간판이나 상표에 사용하지 못한다. ‘중국(中國)’이나 ‘국(國)’자를 첫글자로 하는 상표에 대한 심사는 매우 까다롭다.

○ 종교 선전 불허

중국에서는 중국공산당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종교의 자유가 있으나 종교선전이나 대형종교 모임은 불가능하다. 외국인의 중국내 종교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경내외국인종교활동관리규정’에 따라 허용한다. 외국인이 중국내에서 선교활동을 할 경우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무단으로 선교활동을 하거나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종교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 대화주제

중국에서 언급해서는 안되는, 즉 금기된 대화주제가 있다. 문화혁명, 티베트, 대만과의 관계, 소수민족의 독립문제 등은 민감한 주제로, 대화주제로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반대로 중국인이 선호하는 대화주제로는 오랜역사, 다양한 음식문화, 중국의 위상 등이 있다.

□ 비즈니스 에티켓

○ 식사

중국은 국토가 크고 인구가 많아 지역마다 식습관에 차이가 있다. 자리의 경우 호스트가 권하기 전에 자리를 정해 착석하는 행위는 피해야 하며 음식은 익히지 않은 음식은 거의 먹지 않으며 익힌 음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북방사람들은 면이 주식이고 진한 맛을 좋아하며 풍성한 상차림을 좋아 한다. 반면, 남방 사람들은 쌀이 주식이고 담백한 맛을 좋아하며 음식을 낭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식사하는데 주의해야할 것은 한종류의 음식만을 깨끗이 비우지 않는 것이다. 회족(回族)은 돼지고기를 절대먹지 않으며, 후베이(湖北), 저장(浙江) 등의 지역사람들은 매운음식을 좋아하지 않는다. 중국인들과 함께 식사할 경우 먼저 금기사항이 있느냐고 물어 보는 것이 예의이다. ‘우지우부청시(无酒不成席, 술이 없으면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손님접대, 비즈니스 상담모임에서는 술이 빠지지 않는다. 술을 마실 때 일반적으로 중국사람들은 한사람씩 돌아가며 술을 권하고 필요한 경우 건배를 위해 자리를 자주 이동하기도 한다. 술잔을 돌리는 관습은 없다. 차나 디저트를 권유할 경우 거절하지않는 것이 예의이다.

○ 선물(중국인은 선물을 받은 후 그 자리에서 열어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관계	적절한 선물	부적절한 선물
일반적인 관계	- 성의를 담은 과일 꽃 특산물등	손수건, 우산, 시계, 하얀꽃은 눈물 혹은 죽음을 의미하므로 부적절함
비즈니스 관계	- 구하기 힘든 문화 관련 티켓 - 보기 드문 특산품	초면에 너무 고가의 선물을 하면 상대방에게 부담감을 줄 수 있고, 뇌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함

○ 인 사

상 황	인 사 방 식
첫 만남	- 니하오(你好) / 닌하오(您好) - 호칭은 이름을 빼고 성에 직함을 붙여 부름 - 날씨나 사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친밀감의 표현
감사	- 쉰쉰(謝謝) - 연장자나 상사에게는 살짝 고개를 끄덕여 인사
일반적인 안부	- 츠러마(吃了嗎)가 보통 아는사람간의 편한 인사
사과할때	- 똬이부치(对不起), 부하오이스(不好意思)
아침인사	- 자오(早) / 윗 사람에게는 자오상하오(早上好)
헤어짐	- 짜이찌엔(再見)

○ 복 장

중국인은 대체적으로 복장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 편으로 정장을 입더라도 대부분 넥타이를 하지 않는다. 중국인들은 복장에 있어서 디자인보다는 브랜드를 크게 중시하는 편이다.

○ 대 화

중국인과의 비즈니스에 있어 한담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때문에 형식적인 이야기로 생각할지라도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만난자리에서 간단한 교제성의 대화도 나누지 않고 바로 비즈니스의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바이어상담 및 거래시 유의사항

○ 실수요자와 직접접촉

중국은 실수요자와 에이전트가 이원화돼 있어 비즈니스상담은 실수요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중국업체들이 요청하는 대리제도는 독점판매와 비슷한 형식으로서 한지역에 대해독점 판매권을 주고 바이어의 능력에 따라 광고비용, 시장개척비용 일부를 주는 것이나 독점대리를 한번주면 파트너를 바꾸기가 쉽지 않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 상담시 최대한 중국어활용

중국업체들은 대부분이 영어구사능력이 부족하므로 중한통역원을 동참하는 것이 좋다. 자료 송부시 중국어로 작성된 상담자료를 송부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전화통화시에도 중국어가 가능해야 통화를 진행 할 수 있다. 먼저 중문카탈로그 및 샘플(제공가능한 경우)을 해당업체에 제공한 뒤 팩스나 이메일로 접촉해야 한다. 또한 중국업체 특성상 물품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경향이 강하여 상담시에는 샘플등을 휴대하고 상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철저한 사전준비

최초 접촉단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무역분쟁의 경우 대부분이 수출대금 회수불능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물품인수와 대금지불간의 연계방법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국어와 영문으로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어로 된 계약서도 같이 작성하여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시로 점검하는 편이 좋다. 중국어 계약서만 작성 할 경우에는 중국어를 보는 것이 부담되어 계약서를 잘 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서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단계부터 법률전문가(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며, 계약서는 반드시 전문표준계약서 양식을 활용해야 한다.

○ 충분한 전문가활용

먼저 사업을 시작한 경험자, 변호사, 한국의 중국과 연계된 기관 등 주변에 있는 각종 전문가를 최대한 동원하여 활용해야 한다. 통역원을 동참 할 경우에는 충분한 의사전달이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통역원이 중간에서 잘못 전달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간혹 통역원이 통역을 하면서 파악한 사업내용을 토대로 중간에서 사업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 중국에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까지는 직접 중국말을 배우고 사용할 줄 아는 편이 도움 된다. 분쟁의 소지가 보일시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료를 지불하고서라도 먼저 상담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 증거확보

중국에서 중국인과의 분쟁발생시 사후에 증거를 수집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사전에 미리 증거를 수집해 두어야 한다. 중국인들은 개인간 에도 증거(특히 물적증거)를 중시하는 편이므로 반드시 물적인 증거를 확보해두어야 하며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좋다.

○ 방문시기

춘절(음력1월1일), 노동절(5월1일), 국경절(10월1일)은 장기연휴기간이므로 중국방문시기로 적절치 않다. 대부분의 업체가 이시기에 장기휴무에 들어간다. 특히, 우리나라의 구정에 해

당하는 춘절연휴부터 정월대보름사이에는 중국국유기업 및 정부기관과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외 원단(1월1일), 청명, 단오(음력5월5일), 노동절, 중추절 등 법정공휴일에는 3일 이상 휴무하는 곳이 많으므로 방문이 적합하지 않다.

4. 한국상하수도협회 『해외 물산업 실무과정』 교육안내

-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는 중소 물기업 맞춤형 전문인재양성을 위하여 "해외 물산업 실무과정"을 9.21(월)~22(화) 양일간 무료로 교육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 교육의 주요내용은 해외 물산업 프로젝트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계약, RISK 관리에 관한 내용이며 관심있는 기업은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http://www.kwwa.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